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6. 선종의 사구계(2)

선종의 사구계는 어느 경전에 출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구계의 근거는 <능가경> 권3에 '일자불설(一字不說)'과 <대품반야경> 권7의 '일자불설' 혹은 '무자무설(無字無說)' 등에 나타난다. 석가모니의 처음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초기 선종의 이수였다. 곧 불교의 근본정신에 복귀하자는 실천불교로서 황매련 쌍봉산 일대와 강서, 호남 지방의 산사에서 일어난 대중적인 불교운동이다.

嫌嫌 但莫憎愛 洞然明白"고 노래하듯 이 있는 그대로 평상심을 벗어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럼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단경>의 선회를 음미해보자.

“스스로의 본래면목을 돌이켜 비취보면 비밀함은 도리어 그대 자신에게 있다”
분별없는 평상심 그대로가 조사의 입각처

이야기는 이렇다. 5조가 노행자에게 비밀히 의발을 전했 다는 것을 듣고 진혜명은 동지 수십 명을 데리고 대유령에 이르러, 혜능을 먼저 발견하였다. 노행자는 혜명이 오는 것을 보고 의발을 둘 외에도 던지면서 말했다.

“이 옷은 믿음을 표시하는 것. 어찌 힘으로 닦아놓겠는가.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제가 온 것은 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오. 옷을 위한 것이 아니니 행자는 저에게 일러 주시오.” “그럼 모든 연(緣)을 다 버리고 한 생각도 내지 마시오. 내 말하리라.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약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할 때, 어떤 것이 상좌의 본래면목인가?” (不思議 不思議 正與時 那箇是明上座 本來面目) 이 말을 들은 혜명은 바로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몇 차례 절하고 물었다.

“저가 비록 오래 동안 황매에 있었으나 사실은 아직도 자신의 본래면목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받으니 마치 스스로 물을 마셔 보고 차고 더운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육조단경> '오법전'의, <전등록> 권4)

흔히 지식을 선가에서는 알음알이라 한다. 머리 하나만 이해되고 통달되어 아는 기술적 지식과는 달리 선적체험은 정신적 지혜와 육체적 경험, 머리와 마음을 모두 통하여 증장(增長)시킴을 의미한다. 이 선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량분별(思量分別)하지 않는 평상심 그대로가 조사의 입각처(立脚處)다. 이것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전할 것이 없는 것을 전하니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 한다. 이 소식을 단학이나 연하였다.

선조들이 남을 위하여 방법 전혀 수긍할 수 없구나. 看他先祖爲人 終不肯 이리 오너라, 여러분은 알겠는가? 過這邊來諸人 還會麼 별 뜨기 전에 나선 사람 천봉우리 뜰에 누웠으니 星前入臥千峯室 불조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구나, 했다. 佛祖無因識得渠 (<선문염송> 28칙 '본래면목')

착어: 불조는 불조니까 알지 못한다. 히!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명이 밀전병 말이

불자들은 흔히 '명'이라는 나물을 아십니까? 명이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이나 오대산, 설악산 같은 높은 지대와 울릉도에 자생하고 있는 산나물입니다. 때문에 일반인들은 명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이는 장 효과가 높은 산채로 '명이나물' '신선초'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력이 너무 없어 몸을 잘 가누지 못할 때 어린 동자승을 불러 땅 속에 묻어 두었던 장아찌를 알려주어 스님이 드시게 했는데, 그 후 원기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노스님이 '신선초'라 불렀던 것이 바로 명이였던 것이죠.

'명'이라는 별명에 얽힌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율령도로 이주한 100여명이 겨울 동안 육지에 서 가져간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기 직전이었을 때 이때 눈을 뚫고 돌아온 명이를 발견하고, 이것으로 3개월여 정도의 긴 겨울을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숨을 구한 식물이라 하여 '명'이라 하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명' '맹'이라 불렀다고 하는군요. 또한 일본에서는 명이를 수도승이 고행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얻기 위하여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명이는 잔설이 있는 이른 봄에 새순이 돌아나는데, 잎이 3매 이상 완전히 전개했을 때 뜯어 나물을 이용합니다. 독특한 향이 있어 입맛을 자극하고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우수한 식품으로 평가 받습니다. 또 한 자양강장 효과가 높고 맛과 가지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효과 및 인체 내 비타민 B의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기력 회복에 탁월해 '신선초'라 불려

독특한 향이 맛 자극, 비타민 등 풍부

이 명이는 염장이나 장아찌, 묵나물 등 저장식품으로 이용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명이 요리법을 살펴볼까요? 우선 명이를 데쳐 두부를 으개 찹기를, 깨소금, 된장으로 간을 맞춰 나물로 먹습니다. 또 명이 있을 초간장에 절여 두었다가 익으면 깨나 밥을 찌먹기도 하고, 밀가루 반죽을 문혀 튀겨 먹기도 하고, 죽이나 표고버섯과 함께 볶아 먹기도 합니다.

오늘은 명이 밀전병에 말아 된장 소스에 찍어 먹는 '명이 밀전병 말이'를 만들어 봅니다.

선조들이 남을 위하여 방법 전혀 수긍할 수 없구나. 看他先祖爲人 終不肯 이리 오너라, 여러분은 알겠는가? 過這邊來諸人 還會麼 별 뜨기 전에 나선 사람 천봉우리 뜰에 누웠으니 星前入臥千峯室 불조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구나, 했다. 佛祖無因識得渠 (<선문염송> 28칙 '본래면목')

착어: 불조는 불조니까 알지 못한다. 히!



명이 밀전병 말이

재료: 명이, 잣, 된장, 마늘, 밀가루

- ① 명이는 싱싱한 것을 골라 씻어 잘게 잘라내고 밀가루를 깨끗이 닦는다.
② 잣은 굵게 다져서 된장, 마늘을 넣고 되직하게 만든다.
③ 밀가루는 물을 넣고 개어 알싸하고 동글게 전병을 부친다.
④ 밀전병을 퍼서 명이를 올려놓고 돌돌 말아 접시에 예쁘게 담고 잣을 뿌린 된장을 곁들여 낸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해인으로 가는 길

도훈환 | 문학동네 | 7000원



이 시집은 도훈환 시인이 최근 세 해 동안 산속에 흠뻑 젖고 병든 몸을 치유하면서 쓴 시들의 결과물이다. 시집의 뒤에 '산방에서 보내는 편지'가 게재되어 산에 들어간 동기와 산에서 생활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산에 들어간 이유는 "몸이 정지신호를 보내 육신을 쓰러뜨렸기 때문"이고, 이는 몸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경고"였다는 것이다. 그 세 해 동안 시인은 자신이 "정지해 있었고 팔호 속에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자신을 "빈

소리 바람 소리다 / 그래도 신을 벗고 바람이 나뭇잎과 쌓은 / 증증연기 그 길 긴 입을 풀었다 땀었다 하는 소리에 / 발을 담그고 앉아 있다 / 지난 몇 십 년 화업의 마당에서 나무들과 함께 / 숲을 이루며 한 세월 버치고 즐거웠으나 / 심신에 병이 들어 쫓기듯 해인을 찾아간다 / 애초에 해인에서 출발하였으니 돌아가는 길이 낯설지는 않다 (후략)

다. 해인에서 화업으로 가는 거리, 화업에서 해인에 이르는 거리는 순간이다. 순간이라는 거리가 없다. 그는 산에 살면서 차나무를 심고, 벌을 세며 장작을 쪼개고 불빛 옆에서 시를 읽었다. 이러한 산중 생활을 하면서 "그냥 고요하게 살면서 '나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도 내 몸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른다. 그러나 자신의 산중 생활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자신 하나만의 은기와

깊이·입체의 삶으로 가는 '길' 찾기

발처럼 내버려 둔, 이 정지와 공백과 생략의 시간에 '화업'에서 '해인'으로 깊어진다. 여기저기 분주하고 번잡했던 길이의 삶 평면의 삶에서 길이의 삶 입체의 삶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표제시 '해인으로 가는 길'이 그렇다.

화자는 화업에서 몇 십 년을 버치고 즐겁게 살다가 심신에 병이 들어서 해인을 찾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본래는 해인에서 출발하였으니 다시 해인으로 가는 길이 낯설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해인에서 경계에 걸리지 않아 무장무애하게 되면 다시 화업으로 돌아오겠다고 한다. 화자가 말하는 화업과 해인의 거리는 '지척'이다. "화업으로 휘돌아치기 직전 해인"인 것이다. 그렇

히기를 매우기 위한 삶, 도피하는 삶에 대한 우려를 한다. 그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행동해왔던 '시대의 의무'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세상을 떠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며 세상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그의 지난 산중 생활은 시대와 깊은 울림을 위한 수련기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봄의 줄타'에서 형상화된다.

시골교회 남은 자주씩 지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적러 햇살이 몸을 끌고 앉아 하루 종일 자기가 일한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

- '봄의 줄타' 전문

봉축 풍주선원 제2대 김덕일 주지스님 진산식
귀의 삼보하옵고, 성하의 계절에 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불교 청정 전통선맥을 이어가고 있는 풍주선원장 제2대 김덕일 스님의 진산식에 소중한 인연을 모십니다. 여러가지 도전과 극복 과정을 걸쳐 수행하는 도량, 정진하는 도량으로 만들어 놓으신 큰스님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진산식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또한 범주당 정수 대화상 부도탑 제막식과 유교집 출판 기념 법회도 함께 봉행합니다.
◆ 일시 : 불기 2551(2007)년 5월 1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풍주사 관음전
◆ 문의 : 중무소 043)256-5585, 258-3199

2007년 제5회 가침박달꽃축제
화장사에서는 천연유전자원보호법 제32호로 지정된 세계적 희귀 수목 가침박달나무가 약 만여평에 걸쳐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침박달나무 군락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북 임실군 관촌지구 보다 그 규모면에서 약 10배가 넘는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가침보존회는 청주를 대표하는 생태,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행사내용
① 2007년 4월 26일 - 명암타워 가침박달나무 학술세미나
② 2007년 4월 30일 - 화장사 초의차문화 총복지부 다도시음대회
③ 2007년 5월 4일 2시 - 화장사 전통음식 발굴 경연대회 및 사찰음식 시연대회
④ 2007년 5월 5일 - 어린이날 행사, 사진전시회, 꽃씨뿌리기, 야생화 심기, 그림그리기
⑤ 2007년 5월 24일 - 불기2551년 부처님 오신날 행사
◆ 문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 29-4번지 ☎ 043)255-5758
◆ 주최 : 가침보존회, 가침박달꽃축제 준비위원회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화장사
◆ 후원 : 청주시, 청주불교방송, 화제신문, 전통시찰음식문화보존회, CJB방송

"산사와 트로트의 이색 만남"
불기2551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념 제3회 트롯 산사 음악회
관음사에서는 매년 사월초파일 밤마다 '트로트'를 주제로 봉축음악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가장 대중화된 음악 장르인 트롯트를 조용한 산사에서 흥겹게 승화시켜 불자들에게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청주불교방송 특집공개방송이 계획되어 더욱 뜻 깊습니다.
■ 일시 : 2007년 5월 24일(사월초파일) 오후 8시
■ 장소 : 관음사 경내 특설무대
■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청주 관음사 (주지 현진스님)
■ 주관 : 청주불교방송, 관음사 신도회
■ 프로그램 : 사회-염경환(개그맨)
◆ 초대가수 - 현진우 (대표곡 '빈손' '고로해서') 최유나 (대표곡 '반지' '별나라') 진요근 (대표곡 '아니야' '불교'), 황혜린 (트로트 신동)
◆ 출연가수 - 이상아, 단주 등 지역가수
◆ 찬조출연 - 관음사 약사회원, 어린이 발리댄스 시범단
<봉축사진전>
○ 기간 : 불기 2551년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 개막식 : 불기 2550년 5월 17일 오전 11시
○ 장소 : 관음사 천불전
○ 문의 : 관음사 중무소(043-256-6254) 주지스님(011-358-7786) www.gwanumsa.org